

땅끝의 역사 한자리에... 해남역사박물관 건립 빨라진다

해남군-해양유산연구소 협약... 올해 타당성 평가·2028년 개관 목표 선박 등 전시·수중유산 발굴...해양역사·문화 알리기 다양한 사업 추진

땅끝 해남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역사 박물관 건립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최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와 해남군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해남역사박물관 건립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고대 국제해양교류의 중심지인 해남의 해양역사와 문화를 일반에 널리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수중유산의 발굴 및 조사, 해남군 출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해남군이 추진 중인 해남역사박물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전문과 지원을 하고, 해남지역 출토 선박 등 유물에 대해 전시 및 연구를 위한 자료이관, 대여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비귀속유산 중 해남청자에

대한 유물 이관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긍정적인 방향의 협력이 진행되면서 해남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김성배 소장은 "해남은 우리 해양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해남군의 의지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전담팀을 구성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군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실 있는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감대를 모아오고 있다. 또 박물관 소장품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진행해 '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해남 관련 유산들의 소멸 위기를 제도적으로 막

기 위한 행정 기반도 마련했다. 조례를 통해 우선 해남유물 대국민 기증, 기탁 캠페인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군청 임시수장고에 안전하게 보존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복원된 거칠마 유적 속보전' 주제로 전국 최초 이동박물관을 개관해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동박물관에서는 마한역사문화권 학술발굴 조사로 발굴되는 '백포산 일원 패총유적'과 '현산면 일원 고분유적'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해남역사박물관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쳐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양 기관의 협력이 해양역사와 문화를 일반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양한 기관들과 업무협조는 물론 군민들의 공감대를 모아 해남역사박물관 건립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지난 14일 명현관 해남군수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계자들이 해남역사박물관 건립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겨울철 국민 간식 '영암 황토고구마' 수확 한창



영암군 도포면 성산리 들녘에서 국민 간식으로 겨우내 따스함과 든든함을 전할 황토고구마 수확이 한창이다. 상처에 병원균 침입을 방지하는 큐어링(curing)과 저온 숙성을 거친 영암 황토고구마는 당도가 높고 색깔도 선명해 전국 최상품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영암군 제공)

신안군,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신안군이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군청 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 전문 연주단체 '드림위드앙상블'을 초청해 '편견이 눈을 감으면 가슴이 음악을 듣는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드림위드앙상블 이주주 이사장의 강의로 시작해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드림위드앙상블'의 클라리넷 연주팀의 선율로 마무리했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포용적 문화를 조성해 모두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



신안군이 지난 15일 발달장애 전문 연주단체 '드림위드앙상블'을 초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신안군 제공)

길 바란다"며 "전 군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장애인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양치유 중심' 완도 매력 담은 영상 콘텐츠 공모

완도군이 해양치유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아 '2024 완도군 숲품 영상 공모전'을 연다. 공모전은 11월 13일까지로 공모 기간 내 제작한 영상 중 타 공모전 수상 이력이 없는 순수 창작물로 개인(팀은 3인 이하) 당 1편씩 출품이 가능하다. 주제는 '완도에서 치유하자!'로 해양치유, 여행 치유(관광), 음식 치유(먹거리) 등 완도의 매력을 자유롭게 담은 1분 이내의 숲품 영상이면 된다. 군은 접수된 작품을 작품성, 창의성, 활용성, 대중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한다. 완도군 공식 SNS(유튜브)에서 투표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4점 등 수상작 8편을 선정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참신한 영상 콘텐츠가 많이 발굴돼 해양치유 중심지 완도, 완도의 다양한 관광자원, 먹거리 등이 널리 알려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kwangju.co.kr

진도군, 전국 농산물 유통 전문가 초청 간담회

진도군이 전국 농산물 유통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했다. 진도군은 지난 10일 군청 회의실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관계자를 초청해 진도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 향상과 판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진도군, 농협 중앙회와 지역농협, 그리고 전국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사 등 약 30명이 참석,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앞둔 진도 농산물이 상품성을 인정받고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서울지역을 비롯한 대구, 부산지역 등 전국 각지에서 인지도가 높은 유통전문가들이 참석해 신안군이 주산지인 대파, 배추가 재배되는 발에서 생육 동향을 직접 파악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졌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진도농업의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진도 농산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목포, 100년의 '시간夜행'

18~20일 목포 문화유산 야행 '夜' 주제 50개 프로그램 진행

목포시가 7년 연속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4 목포문화유산 야행(夜行)'이 18일부터 3일간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개최한다. <포스터> '100년의 시간야행, 목포의 밤을 거닐다'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야행은 8야(夜)를 주제로 50여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근대 목포 시민들의 삶과 희망찬 도약을 하고 있는 현재 목포를 표현한 무빙 샌드아트와 '야행-고백하기 좋은날' 목포 시립합창단 창작 뮤지컬 개막공연으로 야행의 시작을 알린다. 근대역사관 2관은 개막공연을 포함해 목포 무형유산 박방금-안부덕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명창을 만나다'와 '뽀뽀-날개없는 천사' 연극공연, 목포의 출생인 고(故) 우봉 이매방의 전통춤 공연 등이 진행된다. 경동성당에서는 '목포 근대 재즈콘서트', 품의 오케스트라 공연, 춤과 재즈가 어우러진 '스윙재즈' 공연 등이 진행돼 빛으로 채색된 경동성당과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들이 잊지 못할 가을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옛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강당에서는 국가무형유산인 육(玉)장 장주원 선생의 해설이 있는 육공예 시연과 전시를 개최하고, 야외 무대에서는 가족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인형극 복춘사 람블' 공연과 다양한 체험존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야행에는 성육 이훈동 선생이 수집한 근·현대 작곡과 고미술작품, 도자기 등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성육기념관을 18일-19일 이틀간 연장 개방하고, 기념관 잔디 마당에서도 전우용의 근대역사 토크콘서트와 '브리앙트' 공연도 진행된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다. 인근 옛 유림주유소 공터에는 근대거리를 찾는 관람객에게 독립영화를 감상하고 야행의 밤을 환하게 밝혀줄 조명과 포토존, 캠핑 체험장을 조성하여 휴식이 되는 공간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시민과 지역 대학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야행을 만들어가고자 목포대, 목포과학대, 문화재단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공연, 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추가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100년의 시간을 이어오고 있는 목포만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기고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영암도기박물관 전경.

영암서 발굴된 문화재, 영암군에 전시·관리

영암 도기박물관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기관 지정

영암군은 영암도기박물관이 최근 국가유산청의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국가귀속문화재는 지표·발굴 조사 과정 등에서 발견·발굴된 문화재 중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있어 국가가 보관·관리하기 위해 귀속하는 유물이다. 지금까지 영암군에서 발굴된 유물 중 국가귀속 문화재는 나주·광주 등 국립박물관이나 문화재연구소 등에서 보관돼 왔다. 이번 위임기관 지정으로 영암지역에서 발굴된 다양한 유물을 영암도기박물관에서 관람·활용할 길이 열렸고, 동시에 철저한 보관과 관리의 책임

도 생겼다. 영암도기박물관은 유물의 관람·보관을 넘어 전문 연구로 학술·전시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 성과를 관람객들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문화재를 지역민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영암도기박물관은 올해 6월 국가 공인 수상시설을 준공했다. 지난달에는 문화재 보존·처리 기술을 보유한 국립목포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 지정 준비를 마쳤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국가귀속문화재 위임기관 지정으로 영암에서 발굴된 문화재를 영암에서 볼 수 있게 됐다"면서 "문화재를 보고, 체험까지 하는 관광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kwangju.co.kr